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5:1-11(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 2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 3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 4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 5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 6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 7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겠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 9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 10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 11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띠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3-4절)

→ \_\_\_\_\_

-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5-6절)

→ \_\_\_\_\_

-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나요?(8절)

→ \_\_\_\_\_

- 9-11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 \_\_\_\_\_

- 3~4절에 따르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 중 하나님이 인내와 소망을 자라게 하신 경험이 있나요?

→ \_\_\_\_\_

-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1절)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감이나 벽이 느껴진다면, 어느때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_\_\_\_\_

-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6-8절)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11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

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실제로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5:1-11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였기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으로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화와 방식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그 속에서 삶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었기에 환난 가운데 즐거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끈기 있게 견디어 낌으로 연단을 이루고, 굽히지 않는 기개는 보증된 기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칭의로 인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점점 더 멋져질 것입니다!

6. 기도